

열가지 약속 (출애굽기 20:1-17)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가지 약속이다. 십계명인데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안 지키다고 해서 지옥가는건 아니지만 안 지키면 손해가 된다. 그러나 사실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같이 들어 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언약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으로 주셨다. 원죄를 해결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 문제가 완전 해결되었다. 이 근본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절대 스스로 해결못하는 죽음을 해결하셨다. 건강도 경제도, 자녀도, 영적문제도 거서 다 해결된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하나로 해결하도록 원칙을 정하셨다. 62가지 안에 있는 모든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다.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만이 누릴수 있는 단어들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만 62가지가 해결되고 누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고백하는 사람은 62가지가 자기 인생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우리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었으면 좋을 것이다. 편집, 설계, 디자인 되면 너무 좋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다. 내가 심는다고 해서 말씀이 심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심어야'가 답이다. 그런데 아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말씀이 편집되고 디자인되고 설계되면 얼마나 좋은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누리게 이익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그만큼 이익이다. 그러나 진짜 되는 것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언약이 되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된다. 과거의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그렇게 하면 언약적 해석을 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면 과거의 일이 상처가 될것인데 이 눈으로 보면 그것이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된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현재의 문제에 놀리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정복하고 문제 속에서 미래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이다. 상처가 바뀌어 발판이 되었다.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는 것이다. 정복하고 끝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이다.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이 자리를 향하여 가려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잡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렘넌트 7명과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잡았다. 니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것이라는 구체적인 개인 언약을 받았다. 이 개인 언약이 들어오면 그동안 잡았던 언약이 구체화 된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사실화가 되고 개인화가 된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기도 승리에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된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아주 사실적인 근본무기와 함께 잡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증인 되는 것이다. 우리도 렘넌트 7명과 같이 이런 응답 받기 바란다. 그리스도를 계속 잡으면 어느날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신다. 그거 아니어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를 받았다. 이것을 향해 살면 실패하지 않는다. 불신자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면 실패하지 않는다. 물론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 언약이 들어오면 즉시로 믿음과 힘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누림이 달라진다. 즉시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것이거나 하고 잡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으로 들어왔기에 끝까지 답으로 간다. 자동적으로 내가 죽을때까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한 답이고 무기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주신 구체적인 언약, 이것이 완전한 무기이다. 모든 것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한다. 그것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것을 박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 말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엘리사는 오직 감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답 난 것이다. 다니엘은 이미 그 답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끝을 내버린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정말 이 축복 잡고 승리하기 바란다.

1. 열가지 약속

십계명은 일단 계명이다. 지켜야 한다. 안지키면 사단에게 당한다. 5-10계명도 안 지키면 감옥에 가서 죽게 되어 있다. 그런데 계명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다. 축복에 관한 약속, 어

떻게 보면 조건같은 것이다. 이것을 니가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지켜라. 이것이 십계명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 없고 니가 이 언약을 지키냐 안지키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 십계명의 메시지이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 안지키면 하나님이 죽이는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오해이다. 옛날에 현지인들과 성경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십계명 지키면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도 이 부분에 정확한 선을 긋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십계명 아무리 지켜도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십계명은 왜 주었는가? 믿는 자는 이것을 지켜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최소한 지켜야할 선을 그은 것이다. 아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승배 안해야 한다. 최소한의 선인 것이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되는가? 안된다. 더 잘하는 것은 뭐냐면 니것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도둑질은 하지 말라. 최소한 의 선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였다.

1-4계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약속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고 5-10계명은 인간들 사이의 약속이다. 그래서 1-2계명에서 너는 나를 위해 우상을 두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이런 일을 그냥 두지 않고 3-4대까지 저주가 올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할아버지가 절을 많이 하면 손자에게 암이 와버리는 일도 있고 어린애가 정신병에 걸린 애도 있다. 미국에는 절도 없는데 그런 일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절 많이 있다. 절이 아니어도 사단의 방법은 수없이 많다. 이것이 영적인 대물림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을 내린다고 하셨다. 내가 지금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천대는 아무리 이상승배를 해도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은 계속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3계명은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실질적으로는 피조물과 창조주이다. 내가 이 강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강단이 나와 같나? 안 같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와 같아지면 바로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예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를 예사로 생각하지 말아라.

4계명은 안식일, 주일을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어느정도도 해야 되나면 너 자신 뿐 아니라 네 자녀도 포함이다. 네 핏줄 뿐 아니라 니 종이나 자녀들, 심지어 손님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 뿐 아니라 짐승도 지키라는 것이다. 아주 엄하다. 절대 너의 집에서는 주일날 일하지 말고 오직 예배에 집중해라.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했다는 것이다. 니가 복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뭘 드리는데 아니라 나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방법은 참으로 간단하다. 오늘 계명으로 보면 1-4계명 바로 지키면 복받는다. 우리는 이것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5-10계명은 자연적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다. 5-10계명은 어렵게 하나도 없다. 유치원 수준이다. 도둑질 하면 되는가? 안된다. 사람 죽이면 되나? 안된다. 그래서 5-10계명을 지킬수 있는 힘은 곧 1-4계명에서 온다는 것이다. 왜 남의 것을 훔치는가? 영적 힘이 없어서 그렇다. 영적 문제이다. 사람을 왜 죽이는가? 영적 문제다. 그러면 영적 힘을 어떻게 얻는가? 1-4계명 지키면 얻을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힘 없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강조하셨다. 출애굽기 31:15절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했다. 반드시 죽이라고 했다. 그리고 16절에는 안식일을 지켜서 대대로 언약으로 삼으라고 하셨다. 중요한단어이다.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언약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된것인가? 17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과 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니가 내 백성이라는 표징이라는 것이다. 니가 안식일 지키는 것은 내가 니 하나님이라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 중요한 단어가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 신자들은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오직 안식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다. 그러면 안식교 식으로 하면 지금도 유월절에 양잡고 해야 하는가? 그러면 지금도 안식교가 양잡고 제사하는가? 객관선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월절 기간동안에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자손중에 끊어진다. 죽는다고 하였다. 타국인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할례 이야기도 나왔다. 14절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백성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였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할례 안 받았다면 죽어야 한다. 그 이유는 내 언약을 배반했어. 이 할례가 내 언약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13절에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9절에는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였다. 이것을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다 표현의 강도는 같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피를 먹는 것에도 비슷한 강도로 말했다. 레위기 17:10에 유대인 뿐 아니라 거류민들중에서도 피를 먹으면 끊어질거라고 하였다. 거류인이 무엇인가?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피를 먹었다? 구원 없다. 죽는 것이다. 이 피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7장 말고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안식일, 유월절, 할례, 피 말고도 또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말고도 제사장이 먹기도 하는 것이 있다. 그걸 먹는데에는 법도가 있다. 그 법도를 어겼다면 백성중에서 끊어질것이라는 저주의 표현들을 많이 해 놨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안식일에만 이 말을 했다면 모를까 다른 것에도 많이 이야기 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지금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참된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창세기 2:1절에 안식일 나왔다. 그 때부터 참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것인데 그것을 깬다? 그러면 되겠는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안식과 구원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깨버리면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는가?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는 그림같은 장면이다. 피를 바르는 날,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굉장한 메시지이다.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는 말은 피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지 피를 매일 바르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교병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그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언약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것을 깨고 어떻게 살겠는가?

피도 마찬가지로이다. 피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특별한 물질이다. 그것을 먹으면 안된다. 그래서 죽이라고 한 것이다. 유월절 할 때 어린양 고기 구워서 먹어야 한다. 남은 것은 태워서 버리라고 하였다. 그것은 니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도 니 음식이 아니다. 그날 정해진 어린양, 보관한 고기 어린양은 너의 음식이 아니다. 보관하지 않은 양은 니 음식이니까 맘대로 먹어. 그러나 지정하여 14일간 보관한 그 유월절 양은 음식이 아니다. 십자가에 아무나 죽을수 있나?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통 음식으로 생각하면 살겠는가? 하나님을 능멸한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것이다. 이러면 살겠는가? 죽는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는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똑같은 강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깨고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 것이다. 할례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표시를 남기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표시인데 이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살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을 어기는 자는 백성중에 끊어진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지는 제물들, 이것은 거룩한 제물들이다. 제사를 경멸하는 자는 전부 다 망하고 저주를 받았다. 이 제물을 먹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법도 어긋나게 먹으면 살겠는가? 그래서 1-4계명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다 들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오해하면 안된다. 안식일 위해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안식일을 통하여 준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언약으로 잡으면 가다가 마는 것이다. 그리스도까지 가야 하는데 중간에 서버리게 되는 것이므로 안된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설명한 한 부분에 불과하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신다. 언약계, 성전, 꼭 차 있다. 언약계는 레위인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 언약계에 손대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 한번은 수레에 싣고 가다가 흔들려 떨어지는 것을 잡았다가 죽어버렸다. 언약계에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거룩하기에 손대지 말라. 많이 있다. 그래서 1-4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힘이 오는 것이다. 그 힘으로 5-10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5-10계명을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죽는다.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영적 문제가 생겼다. 그런 사람이 있다. 도둑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훔치는 자체가 짜릿한 것이다. 그래서 잡하면 감옥가고, 부끄러워진다. 별것도 아닌 것을 훔치다가. 그것을 안하려고 이를 악물면 이빨이 부러져 버린다.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어야 한다. 그래서 계명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지킬수 있

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4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5-10은 자동으로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라. 이 계명은 너를 살리려고 준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다.

2.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리스도 없으면 5-10계명에 걸려서 죽는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열가지 약속이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되면 당연히 인간관계도 잘된다는 것이다. 1-4계명을 잘 지키면 그리스도도 잘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간관계, 5-10계명도 승리하고 잘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것 신경쓰지 말고 1-4를 잘하면 된다. 그러면 5-10은 따라온다. 그리스도 잘 누리면 모든 것은 따라오는것과 같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원리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 원리를 따라와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는 것이다. 다르게 자꾸 신경쓰인다. 이것이 병이다. 이것 때문에 인생 안되는 것이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청년들 결심해야 한다. 이것 안되서 인생 안되는 것이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바로 해야 인생이 바로 서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이것이 잘 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인간관계가 바로 되지 않아서 실력은 너무 좋는데 도태된다. 혼자서 다 할수 없다. 같이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 내가 뛰어난데도. 그리고 특별한 상처나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의 길이 없다. 1-4계명 말고는 5-10계명 절대 안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항상 5-10계명에서 나타난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욕심가지거나 거짓말하거나 살인하면 안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5-10계명의 세계이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 나타난 것에 불과하고 원인은 따로 있다. 원인은 1-4계명이 안되는 것이다. 1-4가 안되니까 5-10을 지킬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1-4를 제대로 했으면 우리 인생의 5-10계명에서 사단이 벌써 무너졌을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것이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4계명이 무기화되면 5-10의 사단이 무너진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무기와 하는 이 시대의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고 수시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누림이 오고 승리와 정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틀림 없다. 이것을 진심으로 10분을 하더라도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대부분 이것은 안하고 자기 힘으로 살거나, 그러다가 문제가 없으면 그래도 괜찮다. 이것도 사실 괜찮은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안하고 놔두리 하고, 늘 빌고. 언약을 잡고 승리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5-10계명으로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한다. 그것은 틀렸다. 거꾸로 가는 것이고 인본주의이다. 절대 안된다. 그것이 만일 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 한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한다.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안해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따라만 가면 된다. 문을 안 여시면 앉아서 1-4계명 가지고 그리스도 누리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냥 앉아 있어도 안 굶어 죽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항상 고백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깊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이것이 안되어서 망한다. 1-4계명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마음에 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5:9절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만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 그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줄 믿는다. 마음에 담고 결심을 하기 바란다. 나도 오늘부터 진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다. 정말 단 5분을 해도 이 언약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겠다. 이것을 끝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 슬픈 일이다. 우리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 우리에게 주신 기도제목이다. 내 인생의 방향이고 이유이다. 이것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 우리 통해 이것 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응답을 많이 누리면 그리스도를 안 누리려고 해도 누리지게 되어 있다. 잘 생각하고 그리스도 누리므로 일단 많은 응답 받기 바란다.